

주요개념 : 윤리적 가치관, 공리주의, 의무주의

##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안은경\* · 구옥희\* · 김태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 또는 직업적 신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등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가치에도 변화를 주었다(황, 1988).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의 변화, 노인의 소외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절대적 도덕률만으로는 새로이 제기되는 윤리적 난제들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생명과 의료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생의윤리학(Biomedical Ethics)이 대두되게 되었고 간호윤리도 새로이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박 등, 1988; 황, 1988; 홍 등, 1992).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권리문제, 삶과 죽음,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진실, 신의, 제한된 자원의 할당 등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별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자주 직면하게 되었다(한, 1992).

간호사는 생의윤리의 원칙을 임상에 적용하고 윤리관을 통한 간호행위를 실천하여 윤리 도덕 가치기준에 타당한 양질의 간호를 보장해야 하며(이, 1988; 이, 1990), 윤리적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적 가치관이라고 하였으므로(홍, 1991)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은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간호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간호사들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며 이의 수립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 원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행동 선택 원리로 제시되는 것은 윤리이론과 윤리원리, 그리고 규칙들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간호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행하는 간호행위와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시 된다. 특히 간호교육은 인간의 생명, 권리,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기 때문에 타학문에 비해 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장, 1987).

그러나 지금까지의 간호윤리교육은 대부분 나이팅게일 선서의 내용이나 간호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지켜야할 덕목교육에 치중하여온 경향이 있으며(한 등, 1995), 그러므로 앞으로는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 윤리적 가치관, 윤리이론과 원칙을 포함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한, 1992).

이에 관해 지금까지 국외에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간호학생 대상으로는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Cassells, 1989; Cassidy, 1988; Dison, 1985; Eberhardy, 1982; Frisch, 1987; Hembree, 1988; Kellmer, 1984; Munhall, 1980; Turner, 1990)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사 대상으로는 윤리적 가치관을 다루는 연구(이 등, 1988; 장, 1990; 이, 1990; 홍, 1991; 육, 1992)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와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한 등, 1992; 한, 1992)가 있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는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한 등, 1995)에 관한 연구와 간호윤리교육이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한 등, 1995)을 연구한 것이 있을 뿐,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이 어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졌는지 조사하여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리주의 또는 의무주의에 따른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2)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3)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4)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윤리적 가치관: 행동의 영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 1990; 홍,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1990)가 고안한 설문지에 의해서 간호업무 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 신념에 관하여 조사된 내용을 말한다.

## II. 문헌 고찰

가치관이란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인지로서 한 개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동의 바른 길과 올바른 목적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목표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이며 인간의 욕구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홍, 1991).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의 즉각적인 판단은 그 간호

사가 가진 가치체계에 의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보다 많은 최대한의 이점을 가진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택은 항상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자연히 그로부터 선택되는 윤리적 규칙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전 등, 1982).

이러한 선택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적 가치관이며(홍, 1991), 한 등(1995)은 간호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일관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다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간호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행하는 간호행위와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시 된다. 특히 간호교육은 인간의 생명, 권리,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기 때문에 타학문에 비해 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장, 1987).

간호상황에서 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행동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기 쉬우므로 간호행동의 원리가 필요하며, 그러한 기준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홍, 1991).

그러므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간호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간호사들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며 이의 수립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 원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행동 선택 원리로 제시되는 것은 윤리이론과 윤리원리, 그리고 규칙들을 들 수 있다. 윤리원리는 크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공리주의란 결과 이전의 원인이나 의도 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선의 유무가 윤리행동의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수단은 중요시 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 문제에서도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의무주의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론으로 의무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할 절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는, Frankena(1983)의 입장을 지지하여, 의무주의를 기저로 하고 공리주의적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적 의무주의 입장을 선택하며 원칙들간의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한, 1992).

국내에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 등(1988), 이(1990), 홍(1991) 등 소수가 있을 뿐이다. 이 등(1988)은 간호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간호행위의 윤리적 문제를 탐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윤리관의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간호사들은 일정한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990)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였으며, 간호사와 대상자,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관계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이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종교를 가진 경우 간호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간호윤리 기준이 확고할수록 또한 지위와 학력이 높을수록 의무론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199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인간생명 영역과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과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으며, 종교, 연령, 근무경력, 직위, 간호직에 대한 태도 등의 특성이 윤리적 가치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1992)은 간호사들의 윤리의식 정도를 환자, 전문직 업무, 협동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간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는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한 등, 1995), 간호윤리교육이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한 등, 1995), 생명에 대한 태도(엄 등, 1992)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는 1997년 9월 3일부터 30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임의표출에 의해 C도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 간호과와 1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경험전인 학생 171명으로 하였는데, 그 중 간호과 1학년이 129명이었고 간호학과 2학년이 42명이었다. 설문지는 배부한 후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171부의 설문지가 배부, 회수되었으나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163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이(1990)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인간생명 관계 영역 9문항,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 9문항,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 8문항,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 4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단계로 구분하여 절대적 공리주의의 입장은 1점, 절대적 의무주의의 입장은 5점을 부과하였다. 즉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1점에서 '반대' 5점까지의 점수를 부과하였으며, 의무주의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5점에서부터 '반대' 1점까지의 점수를 부과하여 각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최대평점 5점에 평균 2.5점을 기준으로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구분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로 처리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되었고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임상실습 경험 전인 간호학생에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3세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32세 사이였다. 종교가 없는 자가 4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33.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생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서는 38.1%가 대체로 열심히 함에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거의 하지 않음에 34.5%가 응답하였다.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가능한한 오래 머물 것임이 68.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평생직으로 삼을 것임에 26.4%가 응답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 분	N(163)	%(100)
연령	19세 이하	22	13.5
	20-23세	112	68.7
	24-26세	23	14.1
	27세 이상	6	3.7
종교	없음	79	48.5
	기독교	54	33.1
	불교	16	9.8
	천주교	13	8.0
	기타	1	.6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함	10	6.1
	대체로 열심히 함	32	19.6
	형식적으로 함	13	8.0
	거의 하지 않음	29	17.8
간호직에 대한 태도	평생적으로 삼을 것임	43	26.4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112	68.7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5	3.1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임	3	1.8

## 2. 윤리적 가치관

### 1)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학생의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별로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22점으로 나타나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보였다. 다음으로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62점, 그 다음으로는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가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17점으로 나타나 약간 의무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항목은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2.23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안락사 행위가 욕구의 좌절 보다는 만족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로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의 책임있는 행위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최대 평점 5점에 2.96점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의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약간 공리주의에 가까운 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1990)와 홍(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인간생명 영역에 있어서 간호학생들은 개인의 남아있는 삶과 삶의 질을 고려해서 생명을 구할 것인지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N(%)]					M	SD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1.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1 (25.2)	58 (35.6)	11 (6.7)	25 (15.3)	27 (16.6)	2.62	1.43
2.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6 (34.4)	61 (37.4)	12 (7.4)	19 (11.7)	15 (9.2)	2.23	1.29
3.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무의식 환자의 인공호흡기 작동을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0 (18.4)	44 (27.0)	24 (14.7)	39 (23.9)	26 (16.0)	2.92	1.37
4.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2 (31.9)	49 (30.1)	22 (13.5)	28 (17.2)	12 (7.4)	3.62	1.29
5.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 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86 (52.8)	49 (30.1)	12 (7.4)	8 (4.9)	7 (4.3)	4.22	1.07
6.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가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9 (23.9)	36 (22.1)	23 (14.1)	45 (27.6)	20 (12.3)	3.17	1.38
7. 질병말기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2 (13.5)	33 (20.2)	22 (13.5)	41 (25.2)	44 (27.0)	2.67	1.41
8.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8 (11.0)	45 (27.6)	18 (11.0)	56 (34.4)	26 (16.0)	2.83	1.29
9.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 (31.3)	63 (38.7)	12 (7.4)	22 (13.5)	15 (9.2)	2.30	1.29
평균 ± 표준편차						2.96 ± 0.67	

2)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학생의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항별로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가장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간호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09점, 다음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08점으로 나타

나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정직의 원리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81점,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이(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학생들이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1.79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간호를 거부할 때, 간호사는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2.2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적 교리를 침해하면

서까지라도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가 약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2.70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이(1990)와 홍(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환자의 비밀유지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더 먼저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3.17점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대체로 어떤 간호상황에서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가치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성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적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N(%)]					M	SD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1.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간호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12.9)	61 (37.4)	20 (12.3)	44 (27.0)	17 (10.4)	2.84	1.25
2.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간호를 거부할 때, 간호사는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4.3)	25 (15.3)	16 (9.8)	76 (46.6)	39 (23.9)	2.29	1.12
3.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 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4.3)	6 (3.7)	13 (8.0)	57 (35.0)	80 (49.1)	1.79	1.03
4.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2 (44.2)	62 (38.0)	5 (3.1)	15 (9.2)	8 (4.9)	4.08	1.13
5.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2 (7.4)	37 (22.7)	7 (4.3)	66 (40.5)	41 (25.2)	3.53	1.28
6. 사고로 인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1 (12.9)	31 (19.0)	10 (6.1)	60 (36.8)	41 (25.2)	3.42	1.38
7.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간호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3 (44.8)	58 (35.6)	11 (6.7)	17 (10.4)	4 (2.5)	4.09	1.07

- 계 속 -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	SD
8.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 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 (3.1)	18 (11.0)	16 (9.8)	87 (53.4)	37 (22.7)	3.81	1.00
9. 환자가 약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3 (14.1)	71 (43.6)	17 (10.4)	35 (21.5)	17 (10.4)	2.70	1.24
평균 ± 표준편차	3.17 ± 0.43						

〈표 4〉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N(%)]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	SD
1.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1.2)	6 (3.7)	5 (3.1)	49 (30.1)	101 (62.0)	4.47	0.82
2.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역대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16.0)	74 (45.4)	13 (8.0)	37 (22.7)	13 (8.0)	2.61	1.22
3.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해도 불구가 되는 중환자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7 (28.8)	51 (31.3)	23 (14.1)	20 (12.3)	22 (13.5)	2.50	1.37
4.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실수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7 (4.3)	21 (12.9)	35 (21.5)	58 (35.6)	42 (25.8)	3.65	1.12
5.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4 (57.7)	57 (35.0)	10 (6.1)	1 (0.6)	1 (0.6)	4.48	0.69
6. 간호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3 (8.0)	13 (8.0)	21 (12.9)	61 (37.4)	55 (33.7)	2.19	1.21
7. 환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위약(placebo)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1 (6.7)	16 (9.8)	40 (24.5)	54 (33.1)	42 (25.8)	2.38	1.16
8. 환자가 진통제를 맞은지 2시간이 되었는데도 진통제를 요구하고 다른 통증완화 방법을 사용했지만 환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위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0 (18.4)	60 (36.8)	35 (21.5)	24 (14.7)	14 (8.6)	2.58	1.19
평균 ± 표준편차	3.11 ± 0.46						

3)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학생의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4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돕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그 다음으로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47점으로 나타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의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실수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65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보다는 환자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정직과 성실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이(1990)와 홍(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간호직은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2.19점으로 나타났다. 홍(199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미국 간호사의 경우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직업인의 조직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윤리규약 내용에 있다(신재석외위원회, 1987). 다음으로 '환자에게 어떤 경우라도 위약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2.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학생의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

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3.11점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간호학생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환자의 알 권리와 자율적 의사결정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사려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본다.

4)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동료 간호사가 처치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35점, '업무도중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척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35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의사나 동료 간호사가 간호기록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2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신이 수간호사로 지목되고 있으나 친구가 수간호사에 더 책임자인 경우 감독 간호사에게 친구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동료간의 의리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며 비윤리적인 것은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간호학생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1990)와 홍(199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모든 문항이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으며 평균 4.14점으로 매우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이타주의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것으로 사려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 N(%) ]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	SD
1. 동료간호사가 처치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92 (56.4)	54 (33.1)	4 (2.5)	8 (4.9)	5 (3.1)	4.35	0.97
2. 의사나 동료간호사가 간호기록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 (0.6)	8 (4.9)	19 (11.7)	53 (32.5)	82 (50.3)	4.27	0.89
3. 업무도중 동료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척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1.2)	1 (0.6)	9 (5.5)	77 (47.2)	74 (45.4)	4.35	0.72
4. 당신이 수간호사로 지목되고 있으나 친구가 수간호사에 더 책임자인 경우 감독 간호사에게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0 (24.5)	51 (31.3)	47 (28.8)	15 (9.2)	9 (5.5)	3.60	1.12
평균 ± 표준편차						4.14 ± 0.53	



3.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 간 상관관계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협동자 관계 영역이 인간생명 영역과 .25, 대상자 영역과

.29의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 강도는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1991)의 연구에서도 인간생명 영역과 협동자 관계 영역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 외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

	인간생명	대상자	간호업무	협동자
인간생명	1.00			
대상자	.05	1.00		
간호업무	.15	.09	1.00	
협동자	.25**	.29**	.12	1.00

\*\* : p < .01

4.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 8, 9,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종교와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간호학생들이 각각 평균 3.19와 3.17점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평균 2.77점 보다 높아 더 의무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간호학생들이 평균 3.05점, 다른 일을 할 때까지의 잠정적 직업이라고 응답한 간호학생들의 평균이 2.07점으로 나타나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990)와 홍(199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과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에서는 일반적 특성 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두 영역 모두에서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보다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간호학생들의 평균이 4.32점으로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간호학생들의 평균 3.83과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것이라고 응답한 간호학생들의 평균 3.65점 보다 유의하게 높아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1990)와 홍(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교가 있고 간호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간호학생들이 간호직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줌으로써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구분	N	%	M	F
종교	없음	79	48.5	2.77	3.77**
	기독교	54	33.1	3.19	
	불교	16	9.8	2.93	
	천주교	13	8.0	3.17	
	기타	1	.6	2.55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함	10	6.1	3.52	2.25
	대체로 열심히 함	32	19.6	3.14	
	형식적으로 함	13	8.0	2.81	
	거의 하지 않음	29	17.8	3.14	
간호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삼을 것임	43	26.4	3.05	2.67*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112	68.7	2.96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5	3.1	2.55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임	3	1.8	2.07	

\*\* :  $p < .01$  \* :  $p < .05$ 

〈표 8〉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구분	N	%	M	F
종교	없음	79	48.5	3.18	.24
	기독교	54	33.1	3.14	
	불교	16	9.8	3.18	
	천주교	13	8.0	3.23	
	기타	1	.6	3.44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함	10	6.1	3.11	.60
	대체로 열심히 함	32	19.6	3.25	
	형식적으로 함	13	8.0	3.11	
	거의 하지 않음	29	17.8	3.12	
간호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삼을 것임	43	26.4	3.29	2.36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112	68.7	3.14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5	3.1	2.86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임	3	1.8	3.00	

〈표 9〉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구분	N	%	M	F
종교	없음	79	48.5	3.06	.47
	기독교	54	33.1	3.16	
	불교	16	9.8	3.17	
	천주교	13	8.0	3.12	
	기타	1	.6	2.87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함	10	6.1	3.20	.48
	대체로 열심히 함	32	19.6	3.14	
	형식적으로 함	13	8.0	3.02	
	거의 하지 않음	29	17.8	3.20	
간호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삼을 것임	43	26.4	3.09	1.37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112	68.7	3.13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5	3.1	3.10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임	3	1.8	2.58	

〈표 10〉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구분	N	%	M	F
종교	없음	79	48.5	4.12	1.02
	기독교	54	33.1	4.19	
	불교	16	9.8	3.95	
	천주교	13	8.0	4.28	
	기타	1	.6	3.75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함	10	6.1	4.30	1.72
	대체로 열심히 함	32	19.6	4.24	
	형식적으로 함	13	8.0	3.90	
	거의 하지 않음	29	17.8	4.12	
간호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삼을 것임	43	26.4	4.32	3.86**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112	68.7	4.09	
	다른 일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5	3.1	3.65	
	간호직을 택하지 않을 것임	3	1.8	3.83	

\*\* :  $p < .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1997년 9월 3일 부터 9월 30일 까지 C도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와 1개 간호학과 1, 2학년 163명을 대상으로 이(1990)가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평균 2.96점으로 공리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강하게 공리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2.23점이었다. 가장 강하게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22점이었다.

2)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3.17점으로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강하게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때도 간호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09점이었다. 가장 강하게 공리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1.79점이었다.

3)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3.11점으로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강하게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4.47점이었다. 가장 강하게 공리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간호직은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2.19점이었다.

4)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4.14점으로 매우 의무주의적인 특성을 보였다. 모든 항목이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는데, 그 중 가장 강하게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동료 간호사가 처치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와 '의사나 동료간호사가 간호기록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로 두항목 모두 평균 4.35점이었다.

5)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이 인간생명 영역과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6)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종교( $p < .01$ )와 간호직에 대한 태도(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 2. 제 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 종적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 2) 간호윤리교육이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 3)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할 수 있는 타당도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김모임, 이원희(1997). 간호윤리와 실무. 서울 : 현문사.
- 박정호, 김매자, 이선옥(1989). 간호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재석좌우영위원회(1987).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 엄영란(1988). 사전동의, 생의윤리와 간호. 한국 가톨릭 간호협회 보수교육. 65-73.
- 육점희(1992). 간호사와 입원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윤리의식정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전산초, 강규숙, 김소야자, 오가실(1988).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27(5), 79-86.
- 이영숙(199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0(2), 249-270.
- 장수현(1987).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가치관과 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선(1990). 임상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윤리적 가치 인식

정도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가톨릭 의대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산초, 김수지, 변창자(1993). 간호철학. 윤리. 서울 : 수문사.  
한성숙(1992).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성숙, 안성희(1992). 간호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념분석. 중앙의학. 57(1), 55-68.

한성숙, 안성희(1995).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1(1), 5-19.

한성숙, 안성희(1995). 간호윤리교육이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2), 268-284.

홍여신, 한성숙, 엄영란(1992). 간호윤리학. 서울 : 신광출판사.

홍영숙(1991).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3, 1-29.

Cooper, M.C.(1988). Covenantal relationships: Grounding for the nursing ethics. Advanced Nursing Science. 10(4), 48-59.

Dison, N.J.(1986). Dilemma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6, 3390B.

Frisch, N.C.(1987). Value analysis: A method for teaching nursing ethics and promoting the moral development of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6(8), 328-332.

Kellmer, D.M.(1984). The teaching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 schools of nursing: Variables and strategie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5, 1973B.

Munhall, P.L.(1980). Moral reasoning levels of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Image. 12, 57-61.

- Abstract -

### The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hn, Eun Kyong\* · Ku, Ok Hee\* · Kim, Tae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re deontological or utilitaria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163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3 to 30, 1997. Subscale of Nursing Ethical Values(Lee, 1990) were used to measure human life area, nurse-patient relationship area,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area, nurse-colleague relationship area.

Data were analyzed by SPSS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udents took the position of utilitarian slightly in human life area.
2. The students took deontological position slightly in nurse-patient relationships area.
3. The students took deontological position slightly in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s area.
4. The students took deontological position greatly in nurse-colleague relationships area.
5.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colleague relationship area and both human life area and nurse-patient relationship area( $p < .01$ ).
6. The ethical values of human life area related to religion( $p < .01$ ) and attitude of nursing( $p < .05$ ). The ethical values of nurse-colleague relationships area related to attitude of nursing( $p < .01$ ).

Key concept : Ethical Value, Utilitarianism, Deontolog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Doctoral Candida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Professor